

금융 불안 고강도 처방, 패닉 진정될까

시장 안정 도움... 실물경제 불안 확산 차단 '관건'

中企 살리기 기업은행에 1조 출자
건설업체 지원책도 이번주 발표

정부가 한나라당이 19일 은행 외화 차입에 대한 지급 보증과 달러 공급 확대 등을 담은 고강도 처방을 내놓은 것은 미국의 금융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물론 실물경제로 옮겨붙을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동반 대응으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듯 했지만 국내외 경기의 동반침체는 공포가 엄습하면서 또다시 극도의 혼란에 휩싸이고 있어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한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1천억 달러의 외화 차입에 보증함으로써 달러 조달에 숨통을 트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 은행에 300억 달러를 추가로 풀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과 국제 매입에 나서기로 한 것은 금리 급등으로 자금 조달 비용을 키우면서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에 이어 원화 유동성마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대책이다. 3년 이상 투자한 적립식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계 혜택을 추가 추락에 따른 펀드런(대량 환매 사태)을 사전에 막고 장기 투자자금의 유입을 유도해 증시를 안정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10조 원 정도의 자금이 주식·채권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실물경제 전이 차단-재정지출-감세 병행=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강만수(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광우(오른쪽) 금융위원장, 이성태(왼쪽)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한 자리에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기업은행에 1조 원을 출자해 중소기업 대출 여력을 12조 원 늘릴 계획이다. 지난달 말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4조 3천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신규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보증을 4조 원 증액하기로 했지만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이번 주 내놓을 예정이다. 국외에 제출한 26조 원의 감세안과 273조8천억 원의 예산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경기 하강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금융불안 진정 기대- 낙관론 못해"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겠지만

낙관은 금물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장재철 수석연구원은 "향후 중요한 것은 금융 부문의 불안 심리가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7천억 달러 규모의 국제금융안을 마련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감세 등도 함께 언급했는데 우리는 이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Table with 4 columns: Title, Content, and Source. It lists various financial measures and their details.

“종합대책 일시적 효과
금융위기 진화 역부족”

증권업계 반응 증권업계는 19일 정부가 내놓은 금융종합대책이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패닉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를 근본적으로 진화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김학균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부족에 허덕거리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었지만 궁극적으로 해외쪽 유동성이 풀려야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인 만큼 해외쪽 난기류가 계속되면 외환보유고만 쏟아부은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중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이 미국시장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패닉상태에 빠져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 외화-원화 유동성 대책은 금융시장에 일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종우 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안정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40~50% 손해를 본 펀드투자자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해외금융시장의 안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위기의 근본적 해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달러 가뭄 해소될까

정부와 한나라당이 19일 국내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달러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화자금 시장에 달러가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 외환시장에서의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와 은행들은 장기전에 대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 빚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달러 가뭄 해갈에 ‘단비’=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발생하는 은행의 신규 대외 채무에 대해 3년간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기존 채무는 만기가 돼 차환할 경우 그때부터 3년간 지급을 보장해

은행에 단비... 원·달러 환율 당분간 안정 예상

줄 예정이다. 지급 보증을 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은행이 빚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가 대신 빚을 갚아주겠다는 의미다. 돈 떼일 염려가 사라졌기 때문에 국내 은행들은 국외에서 차입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 대한 신용도도 높아져 차입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은 이번 조치로 해외차입 때 우리 은행들이 받을 수 있는 역차별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은행들은 1년 불까지는 아니더라도 3개월 물 차입만 이뤄지더라도 극심한 외화자금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하는 연말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부 지급 보증이 3년간 만기 시장

상황을 봐서 중장기 차입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원·달러 환율 불안 완화 전망=정부는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과 은행에 2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외환스와프시장에도 100억 달러 이상을 더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외화자금시장과 외환시장은 별개지만 최근 두 곳 모두 달러 풀기 현상을 겪었다. 외화자금시장은 국내 은행이 외국은행에서 외화를 차입하는 시장으로 만기는 주로 1년 이하이며, 외환시장은 외국환 은행들이 달러를 사거나 파는 시장이다. KDI 김현욱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며 “외국은행들보다 외화차입 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외환시장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환율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전 대비해야..외교력 필요=그러나 세계적인 신용경색이 내년까지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은행의 지급보증 외에 외교력을 발휘해 선진국과의 통화스와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 등 선진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면 지급보증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신용경색의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Gyeongnam, Korea, featuring a man in a suit and a scenic landscape. Text includes '경남으로 초대합니다' and '2008. 10. 28(화)~11.4(화)'. Logos for 'AMSA' and 'Gyeongnam, Korea' are visible.